

마태오 복음서 17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마르 9,2-10; 루카 9,28-36)

- 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¹⁾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 거룩한 변모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의 의미를 밝혀 준다. 스승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신비로운 영광을 엿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고 권고하신다.²⁾

-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로, ‘계약’의 선구자와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 하느님과 동행하다가 산 채로 하늘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계약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하느님께서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1) 2베드 1,17-18 :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18쪽, 각주 1.

3) 위, 119쪽, 각주 6 참조.

-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 1)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한 뒤에 오는 경외심이다.
- 2)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신앙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야의 재림(마르 9,11-13)

-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 11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 13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1) 유다교에서는 엘리야를 메시아의 선구자로 본다.⁴⁾ 그가 백성을 일치와 충성으로 한데 모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이미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에게 배척을 받은 엘리야로 소개한다. 이제 같은 운명이 예수님과 그분의 선구자를 한데 묶을 것이다. 율법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저질렀고 또 계속 저지르는 배척에 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⁵⁾
- 2)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사람들의 지도자인 율법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다.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마르 9,14-29; 루카 9,37-43ㄱ)

14 그들이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4) 말라 3,23 :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5) 앞, 각주 14.

15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⁶⁾

16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이 말씀은 당신을 찾아온 병자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질책도, 군중이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꾸지람도 아니다. 그들 너머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⁸⁾

18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 꾸짖으시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아이에게서 나가는 마귀이다. ⁹⁾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2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21)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 힘이 있다는 말씀이다.¹⁰⁾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

6) ‘간질병에 걸리다’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달’(月)이라는 말에서 파생하였다. 어떠한 발작 증세가 달이 변해가는 모습과 관련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lunatic’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증세는, 자다가 발작으로 일어나서 제법 정돈된 행동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드는 몽유병이 아니라, 간질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마르코와 루카는 이 병을 곧바로 “영”(=악령)과 결부시킨다. 하지만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신 뒤에야 그 존재가 드러난다(위 120쪽, 각주 16 참조).

7) 신명 32,5 : 그분께 못된 짓을 하여 그 허물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일 따름이다.

사도 2,40 :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필리 2,15 :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8) 앞, 각주 18.

9) 위, 각주 19.

10) 1코린 13,2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는 기적을 통해 신앙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 2)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 뜻에 맞고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이다.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마르 9,30-32; 루카 9,43L-45)

22 그들이 갈릴래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수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찼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수 있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영글지 못하였다.

성전 세를 바치시다

24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25 베드로가 “네입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26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¹¹⁾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뚝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 1) 스무 살이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나라 안에 살든지 밖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 년에 “반 세켈”을 내야 했다.¹²⁾ 한 세켈은 통상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이 세금은 로마나 그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로마 돈이 아니라 유다 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 환전상들이 있었다.¹³⁾

11) 스타테르는 그리스 은화로 4트라크마이다. 성전 세로 2트라크마(반 세켈)를 내었다.

12) 탈출 30,13-15 : 인구 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한 세켈은 스무 게라이다. 그 반 세켈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스무 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 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13) 요한 2,15 :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

- 2) 세상 임금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가족들이거나 그들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 세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의 비유를 건들지 않으시기 위해 베드로와 함께 이 세금을 내시는 것이다.¹⁴⁾
-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베드로가 낚시로 동전을 물고기를 낚은 것은 기적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당신이 곧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4) 앞, 121쪽, 각주 25 참조.